

마을 공동체 신앙 대상의 느티나무

✿	지정번호	세종-46(1982-3)	✿	지정번호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18
	지정년도	1982		지정년도	36° 33' 44.45" N 127° 12' 46.33" E
	관리기관	세종		지정번호	
	수령	592년		지정번호	
	수고	12m		지정번호	
	흉고둘레	3.7m, 5.3m		지정번호	



신목인 동시에 정자목으로 이용하는 보호수(세종-1982-3) 느티나무는 마을회관 옆의 2갈래 마을 길모퉁이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9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한 줄기가 370cm, 다른 줄기가 530cm, 밑동둘레는 8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9m 가량이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2갈래로 크게 갈라져 퍼졌으며, 높이 2m까지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느티나무 주위는 흙을 잘 덮어 주고 둘레에 돌을 쌓아 보호하고 있다. 옆의 정자와 함께 휴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의 동구나무와 관련하고 있다. 띠울마을에서 지내는 '띠울동구나무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흘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느티나무 아래에서 고목에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띠울마을이 형성된 이후부터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의례로 추정하고 있다. 띠울동구나무제의 신앙 대상은 띠울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고목이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느티나무에다 금줄을 치고 제단 주변에 황토를 뿌린다. 의례는 유교식 제례 절차를 따라 예복 차림으로 초헌관이 분향한 다음 초헌관이 술잔을 바닥에 3번 나누어 부어서 신을 모신다. 초헌을 한 후 육적(제사에 사용하는 고기 전)을 올리고, 축문을 낭독하고, 어적(송어)과 선적(닭고기)을 올린다. 종헌례가 끝나면 축문을 태운 후에는 초헌관이 소지를 올린다. 초헌관은 "이 소지는 새해를 맞이하여 목신에게 올리는 소지울시다. 천년만년 건강하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민이 건강하고 태평하시며 하시는 일에 만복을 기원하는 소지울시다."하고 나면 마을회관으로 가서 마을 주민들이 제상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음복한다. 띠울동구나무제는 마을제사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마을 이장과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주민 중심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있다.